

## KIA 최희섭 파혼



“아픔 털고  
훈련에만  
집중할 터”

“내년 시즌엔 모든 아픔을 훌훌 털고 좋은 성적으로 팬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약혼 1년여 만에 파경을 맞게 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거포’ 최희섭(27·사진)은 27일 약혼녀 앤드류 아야(29·씨와의 결별사실을 구단을 통해 밝힌 뒤 “아픔을 모두 잊고 내년에는 팀의 중심타자로 거듭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팀 훈련에 불참한 최희섭은 전화통화에서 “28일부터 광주구장에 나가 팀에 합류해 훈련에만 전념하겠다.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인만큼 내년 시즌엔 더욱 열심히 해 팀에 큰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희섭은 지난 26일 서울 모 호텔에서 약혼녀 앤드류 아야와 만나 파혼을 결정했다. 파혼 이유는 성격차이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차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약혼 이후 문화적인 차이로 찾은 마찰을 빚었고, 지난 5월 국내로 복귀한 최희섭은 결혼과 함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원했지만, 앤드류 아야가 결혼보다는 사업을 고집하면서 갈등이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희섭은 당초 27일 오전 10시부터 무등경기장에서 재활·잔류군과 함께 본격적인 동계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파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결국 애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KIA 관계자는 “파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최희섭의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부모님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27일 구단에 결별사실 통보

## 약혼 1년만에…성격차 때문

서 “그동안 약혼녀와의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혼을 맞게된 최희섭과 앤드류 아야의 인연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희섭은 시카고 컵스에서 LA 디저스 트레이드됐던 2004년 당시 디저스 담당 TV 리포터였던 앤드류 아야와 첫 만남을 가졌고, 이후 보스턴으로 또 트레이드되면서 관계가 급진전됐다.

지난해 3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때는 앤드류 아야의 부모를 만나 정식 교체를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약혼식을 올렸다.

일본 제 10위권인 후요그룹 회장의 딸인 앤드류 아야는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수료했고, 최근에는 일본에서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올해 초 미국 프로 야구 생활을 접고 KIA에 입단하면서 국내로 돌아온 최희섭은 부상으로 52경기에 출장, 홈런 7개 등 타율 0.337, 46타점에 그쳤다.

최희섭은 지난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 대표팀으로 참가해 4강 진출에 기여하고 병역 특례혜택을 받은 뒤 지난 23일 4주 군사훈련으로 군 문제를 해결했고, 내년 시즌 ‘홈런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올림픽 야구 대표 대만 입성…1일부터 예선전

한국야구대표팀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대만 타이중에서 열리는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예선전에서 한 장길린 본선 티켓을 따기 위해 27일 격전지 대만에 입성했다.

김경문 감독과 선동열 수석코치를 비롯해 주장 박찬호 등 선수 27명은 이날 전훈지 일본 오카나와를 출발, 오후 1시께 타이베이 공항에 도착했다.

11일부터 26일까지 보름간 강도 높은 훈련을 치른 탓인지 김 감독은 필두로 대

부분 선수들 얼굴은 겹게 그을린 상태였다.

김 감독은 “도착하고 보니 오카나와 날씨가 많이 다르고 이제 본격적인 ‘전투’라는 생각이 든다. 한달 이상 선수들이 순발을 맞춰왔고 이제 사흘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대만과 첫 경기를 잡는 일만 남았다”고 각오를 밝혔다.

태풍 영향권에 든 대만은 이날 비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대표팀은 이날 호텔로 이동, 휴식으로 오후를 보냈다.

화순중 야구 김부관 감독

‘김일배 지도자상’ 수상

의 우승을 지휘했다.  
또 장충고 야구부의 강타자 김경한(17)은 올해 고교 최고의 타자에게 주는 ‘이영민타격상’을 받는다.

이밖에도 단국대 좌투수 이상훈과 타자 나지완, 성남구 투수 진아급 등 5명은 우수선수상을 탔다.

지방야구 활성화에 기여한 이태성 경기도야구협회 회장 등 6명이 공로상을 받으며 ‘올해의 심판상’은 권영익 심판에게 수여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화순중 야구 김부관 감독

‘김일배 지도자상’ 수상

화순중학교 야구부 김부관(44·사진) 감독이 올해 최고의 아마 야구 지도자에게 주는 ‘김일배 지도자상’을 받는다.

대한야구협회는 “12월 10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릴 ‘2007년 야구인의 밤’ 행사에서 김부관 감독에게 지도자상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감독은 24년간 화순중학교와 화순중학교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며 올해 제54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화순중

## 한국프로골프 ‘영건’ 해외로 ‘티샷’

최경주(37·나이키골프)와 박세리(30·CJ)가 쓰아올린 위업을 이어 받겠다는 깊은 골프 선수들이 대거 해외 무대를 두드린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그리고 일본프로골프투어(JGTO)가 28일부터 일제히 월리파이딩스쿨을 개최해 내년 투어에서 뛸 새내기 선수들을 선발한다.

28일 일본 이바라키현 센트럴골프장에서 6일 동안 치러지는 JGTO 월리파이딩스쿨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특급 신인’ 김경태(21·신한은행)가 응시해 관심이 커졌다.

김경태는 일본 진출이 확정되더라도 일정을 잘 조정해 일본과 한국에서 고루 경기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태 뿐 아니라 정지호(23·면풀스리슨), 이한주(31·클리블랜드), 최혁재(22·두산), 오상택(18), 박준원(20)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일본무대 진출을 노린다.

프로골프 선수라면 누구나 뛰어보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 PGA 투어 월리파이딩스쿨은 28일 오후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 김경태 등 10명 일본 무대 ‘노크’

## 양용은 PGA 월리파이딩스쿨 도전

원터가든의 오렌지카운티내셔널골프장에서 6라운드 108홀 레이스를 펼친다.

지난해 팔락의 쏜맛을 본 양용은(35·데일리레이미드)과 일본프로골프투어에서 상금랭킹 5위를 차지해 최종전 직행 티켓을 얻은 이동환(20·고려대), 그리고 호주 교포인 장타자 이원준(21·LG전자), 재미교포인 박진(30)과 한승우(20) 등 4명의 코리언이 출전한다.

150여명 가운데 25위 이내에 들면 내년에 PGA 투어에서 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올해 PGA 투어 상금랭킹 125

위를 벗어난 선수들과 2부투어에서 경쟁하던 선수들이 참가해 만만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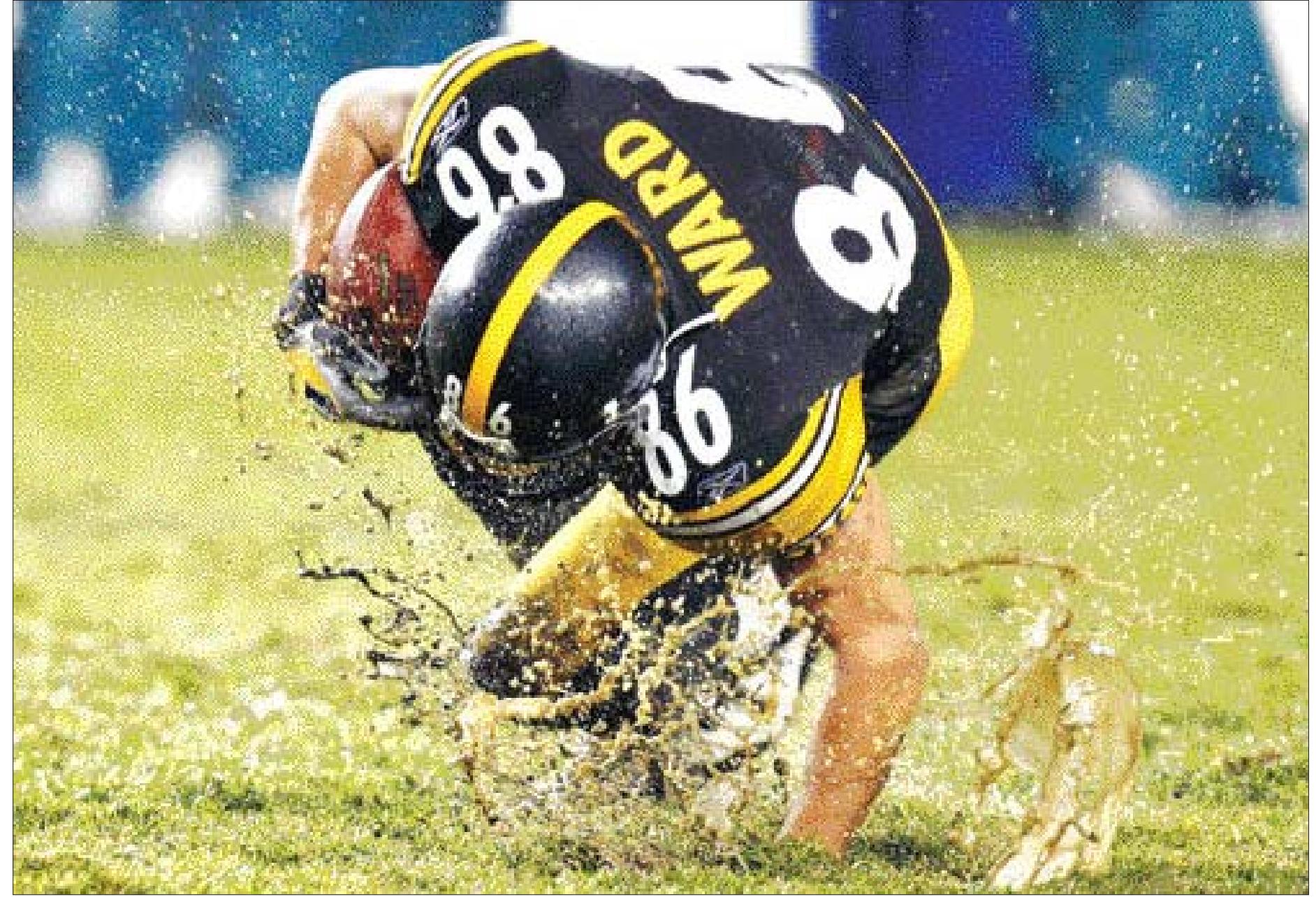
이제 한국 선수들이 주류로 자리 잡은 LPGA 투어는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의 LPGA 인터내셔널골프장에서 28일 오후 월리파이딩스쿨을 개막한다.

PGA 투어보다 1라운드가 적은 5라운드 90홀 경기를 치려 17명에게 내년 투어 대회 전경기 출전권을 부여한다.

출전자 135명 가운데 한국 응시자는 25명. 한국에서 정상급 기량을 보였던 최나연(20·SK텔레콤)과 박희영(20·이수건설)이 내년 투어 합류가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지난해 LPGA 2부투어 상금왕을 차지하면서 LPGA 투어에 직행,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거론됐지만 병 때문에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해 재수에 나선 김송희(19·월라코리아)와 ‘남반구의 미셀 위’로 촉망받던 양희영(18), 그리고 올해 투어 카드를 유지하지 못한 제인 박(20)과 양영아(29) 등이 눈에 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하인스 워드가 2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하인즈필드에서 열린 마이애미와의 미국프로풋볼(NFL) 훈 경기에서 쿼터백 배트리스버거의 패스를 받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 ‘스파이크 쇼’ 겨울코트 달아오른다

## 프로배구 내달 1일 개막

## 총 175경기 5개월 대장정

전력 평균화로 치열한 순위다툼이 예상되는 이번 겨울리그는 전체 7라운드에 걸쳐 정규시즌 175경기(남자 105, 여자 70)와 포스트시즌 남녀 각 5~8경기 등 최대 191경기로 치러진다.

정규리그 중 남자는 4라운드, 여자는 4, 5

라운드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이 아닌 서울 종립경기로 펼쳐진다.

또 정규리그 2, 3위 팀이 맞붙는 플레이오프는 3전2선승, 플레이오프 승자와 정규리그 1위 팀이 벌이는 챔피언결정전은 5전3선승제로 각각 펼쳐진다.

다만 프로화 추진이 좌절된 아마추어 초청팀 한국전력이 내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와 2라운드 2명을 보장하지 않으면 겨울리그에 불참한다고 선언해 한국배구연맹(KOVO)과 구단이 막판 조율중이다.

## 하인스 워드 88야드 전진

미국프로풋볼(NFL) 한국계 선수인 하인스 워드(31)가 속해있는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마이애미 돌핀스를 필드골 함방으로 제압했다.

피츠버그는 27일(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하인즈필드에서 열린 마이애미와 정규시즌 12주차 홈 경기에서 경기 종료 17초를 남기고 나온 제프 리드의 필드골로 3-0 승리를 거뒀다.

워드는 이날 9번이나 패스를 받아 88야드를 전진했지만 경기 자체에 득점이 많아 나지 않아 이렇다 할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이로써 워드는 올 시즌 9경기에 나와 46번 패스를 받아 517야드를 전진하게 됐다. NFL에서 3-0 경기가 나온 것은 1993년 12월 뉴욕 제츠가 워싱턴 레드스킨스를 3-0으로 이긴 뒤 14년만의 일이다.

## ■ 올부터 달라지는 것

## 경기당 한차례씩 비디오 판독 요청 가능

12월 1일 개막하는 프로배구 2007~2008 정규시즌에서는 어느 때보다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지난 달 열린 KOVO컵 마산대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비디오 판정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는 점이 가장 눈길을 끈다.

심판 판정에 불만이 있는 팀은 경기당 한차례씩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비디오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심의 최초 판정을 따른다.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경기가 늦춰지는 경우가 줄어들며 경기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 속행을 거부해 자연스럽게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경기 진행에 불만을 갖고 선수가 1명이라도 코트에서 이탈했을 때 부심의 코트 복귀 요구를 선수가 거부할 경우 주심은 즉시 부전폐를 선언하게 된다. 선수나 스태프가 코트 내에서 경기 속행을 거부할 경우 주·부심이 주장 또는 감독에게 판정 내용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속 경기를 거부

하면 주심의 지시가 있은 지 3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전폐가 확정된다.

여자부에서는 1~4세트에서 텁마다 2차례 2점 백어택이 계속 인정되지만 5세트에는 한 차례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풀세트까지 같 5세트에서 후위 공격의 위력이 줄어들게 돼 백어택만 노리고 후위 공격수에게 집중적으로 공을 배급하는 단조로운 플레이가 줄어들면서 다양한 공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롯데리아 회원권

회원권	사용 기간	권리
광주 3,500	클럽 900	6,200
남광주 4,300	파인힐스	12,200
승주 8,200	원 펍	7,400

상당수 기관에서는 기관별 회원권으로 판매되고 있다.

상당수 기관에서는 기관별 회원권으로 판매